

# 포장기술관리사 자부심으로 업계 일익 담당

이중석 / 동일알루미늄(주) 품질관리과 대리

(사)한국포장협회는 포장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주 동안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실시했다.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에는 총 수강신청자 148명 중 심의 통과자 138명이 합격, 이 중 동일알루미늄(주) 품질관리과 이중석 대리가 98.4점으로 1등을 차지해 성적우수자의 영예를 안았다.

이중석 대리는 “1등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현석원 사장님 이하 공장장님, 부장님,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포장업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금속공학을 전공한 이중석 대리는 1993년 12월 동일알루미늄(주)에 입사,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기술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후 품질관리부서에서 고객불만처리 및 전반적인 품질업무, ISO 9001 실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무지의 지를 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해 남다른 각오로 임하게 됐습니다.”

이중석 대리는 11주간 포장기술관리사 통신



교육을 받으면서 주어진 현업을 수행하면서 레포트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음을 토로했다.

현재 시행되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과정에 대해 레포트 작성은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며 최종 평가는 학습자의 실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장점이 있

다고 말하는 이중석 대리.

그는 덧붙여 오디오 및 비디오를 이용한 교육, 현장견학을 통한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이 두루 접목된다면 포장기술관리사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지 않겠냐며 의견을 제시했다. 포장산업이 새로운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11년 동안 포장업계의 한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중석 대리.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획득을 시작으로 앞으로 새로운 포장방법을 개발해 동일알루미늄(주)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장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제2기, 3기 포장기술관리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장산업에 대한 자부심과 포장인이라는 당당함으로 업계에 일익을 담당할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 포장기술관리사에서 습득한 지식, 전 직원과 공유

장우진 / (주)화승인더스트리 기술연구소 연구 1팀 계장

“본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포장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포장기술관리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사장님 이하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포장관리사를 통해 포장이 갖는 중요성과 포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도록 교육을 마련해 주신 한국포장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97.7점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2등을 수상한 (주)화승인더스트리 기술연구소 연구 1팀 장우진 계장은 현재 신제품 개발 기능성 필름, 그중에서도 환경 친화적 포장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장 계장은 “현재까지 포장은 내용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많은 부분 진보를 가지고 왔지만, 이와는 반대로 각종 플라스틱 용기, 필름 등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에서는 내용물이 좋아도 내용물을 포장하고 있는 소재가 환경에 유해한 경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실정”



이라며 “환경 친화적인 포장 소재의 개발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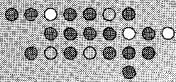
체계적으로 포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포장관리사 자격증에 지원하게 된 장 계장은 “매일 일과 시간 이

후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며 애로사항을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 채점 방식과 관련하여 장우진 계장은 “비교적 교육과정을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논문 평가에 비해 최종 평가는 다소 부족함을 느낀다”며 “최종 평가의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자격 시험의 형태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포장산업은 현재 어려운 현실속에 있지만 모든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의 꽃이라고 당당히 표현한 장 팀장.

그는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가 단순히 자격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서도 접목시켜 전 직원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 포장기술관리사 준비는 행복한 도전

전정기 / 해태유업(주) 품질지원팀 팀장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뜻하지 않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장기술관리사 과정의 준비는 자기자신의 개발을 위한 행복한 도전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포장기술관리사 취득을 도와주신 사장님, 회사 임직원 및 한국포장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97.5점으로 공동 3등을 수상한 해태유업(주) 품질지원팀 전정기 팀장은 R&B 분야에 입사하면서 포장분야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현재 전 팀장은 HACCP 기획 및 관리, 제반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이화학적 및 물리학적 분석실험, 병원성 미생물 검사, 식품포장재 개발 및 개선, 부가재규격 검수 실험, 기존 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기술지원, Technical 등의 업무를 맡고있다.

전정기 팀장은 식품 산업체에 몸담으면서 익혀온 포장기술에 대한 경험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포장기술관리사 자격증에 지원하게 됐다.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통하여 다시한번 포

장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획득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과정 중 레포트 작성과 종합시험에 대해 전정기 팀장은 “포장기술관리사 평가지침에 대하여 전

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보다 발전적인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합격률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전정기 팀장은 식품 산업체 대다수가 포장 분석기기 도입 및 유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과학적인 실험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포장업계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밝혔다.

실무 경험에 의한 명쾌한 판단이 적중되어 제품으로 셋업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전 팀장.

그의 바램처럼 현장에서 배운 식품 및 포장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기술을 학생 및 기술자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 포장기술관리사 획득 통해 포장산업 고찰

심재웅 / 동일알루미늄(주) 품질관리과 계장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포장에 대한 교육을 받게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느낀 점 또한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포장기술관리사 1기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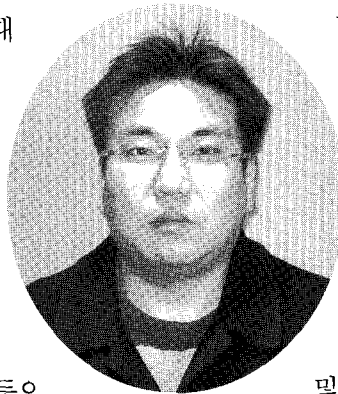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97.5점을 획득, 성적우수자 3등으로 수료한 심재웅 계장은 “교육을 마련해주신 사장님 및 한국포장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심재웅 계장은 현재 (주)남경, (주)동서 등 연포장가공 업체에 알루미늄 박을 납품하고 있는 동일알루미늄(주)에서 대외 고객A/S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 계장은 포장업계에 종사하면서 업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제1기 포장기술관리사에 응하게 됐다.

심재웅 계장은 교육 과정에서 레포트 작성 시간이 부족한 것과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교재를 공부하면서 난해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마땅한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포장협회에서 주최하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레포트 작성과 종합시험으로



당락 여부가 판가름 난다.

심재웅 계장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시스템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통신교육 중간 과정으로 총 수강생들을 소집해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포장산업 관련 강의 및 교육이 한 두 번 정도 시행된다면

더욱 더 알찬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표했다.

덧붙여 그는 주최기관인 (사)한국포장협회에 수강자들이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일정한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포장기술관리사 획득으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포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 무엇보다 뿌듯함을 느낀다는 심재웅 계장.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이제부터 업무에 응용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포장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자세로 국내 포장기술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는 심재웅 계장의 향후를 기대해 본다. [국]